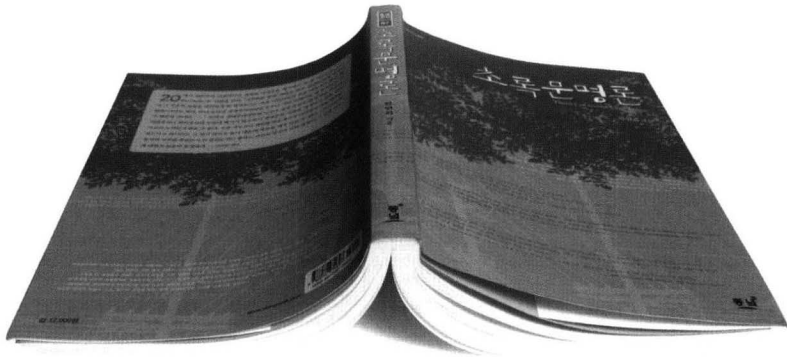


# 《초록문명론》 선정기



## 근원적 『생태정의』에 대한 선언

넘쳐나는 고급의 지혜와 동서의 견문으로 10월 '이달의 책, 이달의 저자' 반상龕床 역시 다리가 휜 지경이었다. 한편 한편 모두 깊이 음미할 지혜의 영양소로 넘쳐났으며, 가난한 심령을 살찌우고, 피가 될만한 것들로 가득했다. 허나 김치국에 젓가락질 하는 격이라고 할까. 기름진 책세상앞에서 단지 입맛만 다실뿐, 딱 한 권의 책을 골라 내야 하는 알량한 저널리즘적 선택이 더 급했다. 〈출판저널〉은 그런 계면쩍은 현실을 어찌하지 못하며, 편집부의 손에 쥐어진 양서들을 두루 테이블위에 올려놨다.

김태완의 《책문》, 당대비평 특별호 《아부 그라이브에서 김선일까지》, 로버트 풀러의 《신분의 종말》, 한면희의 《초록문명론》, 박정훈의 《환경의 역습》, 고은주의 《카테일 슈가》, 홍석중의 《황진이》, 수잔 벅 모스의 《발터 벤야민과 아케이드 프로젝트》, 정은숙의 《편집자 분투기》, 어린이도서관연구소의 《어린이도서관 길잡이》, 이수진·조용신의 《유지컬스토리》, 임동현의 《가족식사》 등이 '이달의 책, 이달의 저자' 후보에 오른 책들이다.

시대적 외피를 볼 것인가, 아니면 텍스트의 내면적 무늬를 볼 것인가. 후보작들을 두고 고심한 대목이다. 이는 당위 아닌 몰가치적 판단의 문제였다. 〈출판저널〉은 그러나 개인과, 그를 아우른 전체집합적 상황이 유난히 가파른 쌍곡선을 그리는 작금의 현실에 눈길이 쏠렸다. 그래서 택한 게 《책문》과 《아부그라이브에서 김선일까지》, 《초록문명론》, 《편집자 분투기》 4권이었다. 때와 장소와 모티브가 어떨든, 대체로 그 행간엔 '시대와 삶의 언설' 이 코드로 깔려 있는 것들이다.

《책문》은 발간 후(後)로 저자는 물론, 석달 야근과 일주일 함숙을 감내한 편집자들의 '피와 땀' 이 전해진다. 이는 조선시대 과거시험 최종관문인 임금앞의 '책문' 에서 드러난 의기로운 선비들의 경세철학을 소개한 책이다. 한말 단발령에 저항했던, '목에 칼이 들어와도...' 란 결기를 웃도는 결곡함이랄까. 임금을 향해 한치 사사로운 없이 목숨을 건 진언을 아끼지 않는 모습에서 오늘의 치세와 처세를 반추할만한 책이다.

2004년 한국인에게 과연 '테러' 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를 손에 잡히는 명제로 인식케된 것이 '김선일' 사건이다. 《아부 그라이브에서 김선일까지》는 국내외를 아우른 24인의 지성의 목소리를 통해 '테러' 가

금세기 벽두에 던지는 육하원칙을 되새김질한 책이다. 당대비평이 모처럼 작심하고 내놓은 특집호란 점도 애깃거려다.

《편집자 분투기》는 '편집자 분투' 라기보단 삶에 대한 치열한 애정을 지녔대삼은 '인생 분투기' 란 편이 옳다. 편집자를 거쳐 출판사를 경영하기까지 지은이가 출판현장에서 겪은 마디마디의 일과 생각이 오롯이 담겨있다. 책이 아닌, '생명' 을 만들어왔다는 자못 엄숙한 고백으로부터 이 시대 프로페셔널의 참뜻을 새기게 하는 책이다.

그러나 모든 시대적 행위와 규정은 본디 인간끼리 '관계맺음' 의 하위개념일 뿐이다. 세상을 조건 지우고 질서 맺어 물질적 형상으로 구체화하는 변수에 다름 아니다. 그래서다 싶어 '문명' 에 주목했고, 《초록문명론》을 금기야 '이달의 책, 이달의 저자' 로 선정했다.

"너희가 생태주의, 그 의미를 아느냐?" 세상에 대고 지은이는 이런 질문을 던진다. 몸에 좋은 친환경식물이다, 유기농을 운위하며, 쾌적하고 분위기 좋은 유투 자작 '웰빙' 에 취한 천박한 노블레스들에게 '껌데기는 가라' 고 일갈한다.

《문명패러다임의 전환》, 《산업문명과 환경위기》, 《환경운동사》, 《초록문명의 대안이념》, 《초록문명의 사회와 정의》, 《새로운 초록문화와 교육》 등 6개 챕터 하나하나 모두 삶과 문명의 알파-오메가에 대한 전방위적 각성을 촉구하는 선언문에 다름 아니다. 자연지배적 세계관을 청산하고, 생태 중심의 겸허한 태도를 권하며, 인간끼리 일체의 지배와 억압을 삼가고 변증법적 자연주의와 우주적 섭리에 충실하길 기구한다. 생태적 삶을 깨뜨린 가부장적 기제에서 벗어나 존중과 배려, 보살핌의 지혜를 또한 촉구한다.

지금 우리 문명에 대한 의구심을 떨치기 위해서도 지은이는 이들 '생태 트로이카' 사상을 실천하고, 초록문명으로 전환하며, 자연과 상생·친화하는 문명이 사회제도 원리로 기능해야 함을 설파한다. 그건 곧 원초적인 자연법적 가치보다 더욱 근원적인데서 연유한 '생태정의' 임을 확인한다. 《초록문명론》이 '이달의 책, 이달의 저자' 에 뽑힌 것은 그처럼 군소리없이 확산에 찬 '문명담론' 이기 때문이다.